

‘여행 인생’ 소통·공감시간 가져요

장유도서관 김병훈 초청

김해시 장유도서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고향희망 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출향작가와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김병훈 작가를 초청해 ‘자전거와 여행 인생’ 강연을 개최한다.

김병훈 작가는 ‘나와 세상을 살리는 두 바퀴, 인간은 태생부터 방랑자’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과 작가 도서 증정 등이 구성돼 있다.

월간 자전거생활 대표인 김 작가는 잡지 발행 이외에도 자전거, 여행, 소설 등의 책 24권을 직접 쓰고 번역한 김해 출신 작가다.

그는 열두 살에 아버지가 사 온 자전거로 비포장 길을 하루 80~90km 달렸다. 목적지가 옆 마을인 짧은 여행을 하며 일찌감치 자전거의 즐거움을 깨달은 작가는 잠시 자전거와 이별하고 서

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기자 생활을 하다가 건강 악화로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할 무렵 우연히 자전거를 다시 접하게 됐다. 지금은 국내 최초의 자전거 전문 잡지를 만들고 자전거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우리나라 자전거 최고 전문가다.

도서관 관계자는 “출향작가와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게 취미가 삶을 바꾼 작가의 강연을 마련해 작가와 시민들의 애향심 증진과 일상 속에서 행복해지는 법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연 참가신청은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김해시공공시설 예약서비스 누리집(yes.gimhae.go.kr) 또는 장유도서관(330-7463)에서 접수받고 있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김해통합도서관 누리집(lib.gimha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락 기자 rock@kndaily.com

브릿지경제

김해시, ‘김해올하도서관’ 개관...“도서관의 새로운 역사 시작”



김해의 6번째 시립도서관이자 단일 도서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김해올하도서관’이

1일 개관한다.

김해서부문화센터 내에 조성된 김해올하도서관은 지상3층 연면적 5648㎡의 대규모 공공도서관으로 어린이자료실, 일반자료실 등의 자료실과 강의실, 세미나실, 전시실 등의 문화공간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이다.

어린이자료실의 모든 가구는 핀란드산 자작나무로 제작했으며, 그림책 작가인 주성희가 그린 벽화가 한쪽 벽면을 채우고 있다. 수유실, 어린이전용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어린이의 독서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인테리어로 어린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3층 일반자료실 1에는 8㎡에 달하는 대형열람테이블과 최신영화와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폭존(Pool zone)과 터치스크린으로 14종의 신문을 볼 수 있는 전자신문코너, 55종의 최신 잡지를 볼 수 있는 연속간행물실 등 최첨단 미디어와 도서가 함께 어울리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4층 일반자료실 2에는 온 가족이 함께 그림책과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패밀리룸 2개와 집단토론을 위한 스터디룸이 있으며, 특히 3·4층을 연결하는 계단공간은 대규모 수직정원을 조성해 마치 공원에서 책을 읽는 듯한 기분이 들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대규모 강좌 및 세미나를 위한 세미나실과 강의실,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야외테라스와 휴게실 등 기존 도서관 이미지를 탈피한 카페 같은 공간으로 꾸몄다.